



논개 고을 푸른장수
탄신 432주년기념 · 제39회 군민의 날

The Euiam Ju Nongae
Festival Memorial of her 432th birth

의암 주논개 대축제

2006

10.22(日) - 10.24(火)

사단법인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의암 주논개 약사



- 1574년(1세)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 1578년(5세) 부친 주달문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의탁함.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헌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악조를 하고 금품을 받아 달아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 관아에 수감됨.
- 1579년(6세) 이른봄, 장수현감 최경희의 심리로 재판이 열림.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 관비를 자청, 김씨 부인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됨. 늦가을, 모녀는 무장현감으로 전직된 최경희를 따라감.
- 1582년(9세) 최경희가 영암군수로 전직되자 따라감.
- 1587년(14세) 최경희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 1590년(17세) 최경희가 담양부사로 재직시 부사의 아내가 됨. 최경희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갈 때 논개는 고향 장수로 와서 기다림.
- 1592년(19세) 최경희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 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함.
- 1593년(20세) 최경희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하여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함. 성이 함락되고 최경희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함.

농개고을 푸른장수

군민헌장

우리 장수군민은 자랑스러운 삼절의 빛난 얼을 계승하고 밝고 맑은 심성으로 산자수명한 내 고장을 풍요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1. 우리 군민은 자유를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민주문화를 꽃 피운다.
2. 우리 군민은 양심과 신의를 지키고 협동봉사하며 공공질서를 생활화한다.
3. 우리 군민은 근면 성실하며 진취적인 의지로 잘사는 내고장을 개척한다.
4. 우리 군민은 심신을 연마하여 건전한 취미와 정서순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5. 우리 군민은 전통문화를 계발하고 서로 화합하여 내 고향 사랑에 앞장선다.

군정방침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 중심도시 장수

- 1. 보람을 이루는 경영·행정
- 1. 모두가 잘사는 농업·복지
- 1. 특성을 살리는 문화·관광



군의 심볼



군의 나무 / 소나무



군의 새 / 비둘기



군의 꽃 / 산철쭉



장수의 노래

이기반 시
이준복 곡

mf F B^b C F

장 안 산 굽 이 굽 이 힘 찬 맥 박 - 이

mf g A d C[♯] C F

골 마 다 즐 기 차 게 흘 러 넘 치 - 니

C C[♯] F D[♯] D g

정 답 게 아 - 름 다 운 우 리 의 터 - 전

C A[♯] d C F[♯] *mf*

행 복 의 씨 앳 뿌 러 서 로 가 꾸 - 세 장 하

F F B^b b^b F

고 - 거 록 하 다 삼 절 의 고 - 장 새 름

C g C *mf* F

게 - 빛 을 내 는 희 망 의 장 - 수

2. 분수령 맑은물에 인심도 좋아
복되게 이어받은 조상의 유산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로 뭉쳐
이땅의 낙원으로 번영 이루세

(후 령)

장하고 거룩하다 삼절의 고장
새롭게 빛을내는 희망의 장수

| 탄신 432주년 기념 · 제39회 군민의 날 |

의암 주논개 대축제 일정표

구분	행사명	시간	장소	비고
10월 22일 (일)	군민체육대회	09:00 ~ 17:00	공설운동장	
	논개사랑인절미기네스도전	17:00 ~ 18:00	의암공원	
	논개춧불진혼제	18:00 ~ 19:00	의암공원	
	인기가수축하공연	19:00 ~ 22:00	의암공원	
	불꽃놀이·레이저쇼	22:00 ~ 22:10	남산공원	
10월 23일 (월)	KBS "휴먼네트워크아름다운만남" (무료이동봉사)	10:00 ~ 15:00	의암사	
	국악공연	11:00 ~ 11:30	의암공원	
	KBS 전국노래자랑	13:00 ~ 15:00	의암사잔디광장	
	동춘서커스공연	15:00 ~ 16:00	의암공원	
	전통민속춤공연	16:00 ~ 17:00	의암공원	
	푸른음악회	18:00 ~ 19:00	의암공원	
	도내대학 락페스티벌/아코디언공연	19:00 ~ 22:00	의암공원	
10월 24일 (화)	주논개제례봉행	09:00 ~ 10:00	의암사영정각	
	기념식	10:00 ~ 11:00	의암공원	
	주논개충절무공연	11:00 ~ 11:30	의암공원	
	호남좌도농악시연	11:30 ~ 12:30	의암공원	
	주논개선발대회	13:30 ~ 18:00	의암공원	
	난타공연	19:00 ~ 19:40	의암공원	
	스카이밸리댄스	19:50 ~ 20:35	의암공원	
	논개창작마당극	20:40 ~ 21:30	의암공원	
	비보이배틀댄스	21:30 ~ 22:05	의암공원	
부대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암백일장 : 10. 19 • 전북남여궁도대회 : 10. 21 • 군수배 테니스대회 : 10. 21 • 전국게이트볼대회 : 10. 16 ~ 17 • 경로잔치 : 10. 24 • 배드민턴대회 :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백일장 : 10. 24 • 주논개배탁구대회 : 10. 14 • 바둑대회 : 10. 21 • 전국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 : 10. 22 ~ 24 • 장수사과경연대회 : 10. 23 ~ 24 • 마라톤대회 : 9. 24 	
	상설 행사	전시 / 체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홍보관 • 지역상품전시관 • 사진·시화·서예전시 • 전통민속놀이체험 • 논개야생화책갈피 및 손수건만들기 • 어린이 3D 입체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논개홍보관 • 정크아트 및 논개만화전시 • 장수사과 종이접기 • 논개점토아트 • 마상체험
기타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대뼈에로 • 논개코스프레 • 비누방울퍼포먼스 • 장수사과 무료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페인팅 • 논개터널 • 논개를찾아라 • 기타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개 포토존 • 논개3종 퀴즈게임 • 풍물야시장 	



논개는 이름, 호는 의암, 성은 신안 주씨이며,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아버지 주달문과 어머니 밀양 박씨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가문은 대대로 학덕이 높은 훈장집으로 동민의 존경을 받았던 빼대 있는 집안이었다. 특이하게도 논개는 4갑술(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 1574.9.3. 밤)의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아이의 사주를 짚어보고 계집애지만 크게 될 인물이라고 기뻐하였다. 이름을 논개라고 지은 것은 딸을 술(戌)시에 낳았으니까 개를 놓은(낳은의 사투리) 것과 같고, 거꾸로 읽으면 '놓은 개', 즉 '논개'가 되므로 그렇게 이름 붙이면 역신도 시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부모의 가르침



을 잘 따랐으며 나이에 비해 성숙하였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다. 논개 나이 다섯살되던 해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의지할 곳 없던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날, 숙부는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웃 마을에서 밥술깨나 먹고 사는 김풍헌에게 찾아가서 조카를 민며느리로 몰래 팔고 달아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논개 모녀는 부랴부랴 외가로 일시 피신했으나 김풍헌의 제소로 장수 관아로 끌려가 재판 받게 되었다. 이때의 재판관은 최경회 현감이었다. 최현감이 자초지종을 캐보니 달아난 숙부 주달무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논개 모녀를 무죄 방면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두 모녀를 최현감은 내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이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최경회와 논개는 만나게 되고 최현감집 식솔이 되었다. 논개는 잔심부름이 끝나는 대로 툼툼이 김씨 부인이 일러준 충·효·열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의암주논

세월이 흘러서 논개 나이 17세가 되던 1590년 최경회가 담양부사로 재직할 때 두 사람은 부부의 예를 올렸다. 그 해에 최경회는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화순으로 가면서 논개를 고향 장수로 보냈다.

2년 뒤 임진년(1592)에는 역사상 980여회의 외침중 가장 처참했다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상중인 최경회는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옛날 현감을 지냈던 장수에 들러 의병을 모집하고 논개도 만났다. 실로 2년만의 해후였다. 최 의병장이 월강리 앞 들판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들을 훈련시킬 때 논개는 동네 부인들을 모아서 의병들의 수발을 들었다. 최 의병장은 훈련된 500여 정예 부대를 골(鶻)자부대로 이름짓고 무주 쪽으로 진격한 뒤 무주 우지치전투에서 첫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산음, 지례, 개령, 성주 등 경상도 일대를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1592년 10월,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데에는 최경회가 이끄는 호남출신 의병들의 성 외곽에서의 맹활약이 크게 주효했던 것이다. 최경회는 그간의 의병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1593년 4월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되어 진주성으로 입성했다. 그 소식이 장수에 머물고 있던 논개에게도 들려왔다. 논개는 벅찬 가슴을 억누르고 한시 바빠 진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남북으로 변장을 하고 진주로 가는 도중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오랜만에 논개를 본 최 병



논개 일대기

사는 한없이 반가웠지만, 회포를 나눌 겨를이 없었다. 10만이 넘는 왜군이 진주성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던 것이다.



6월 19일, 드디어 왜군은 10만여 대군을 사방으로 나누어 진주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해 왔다. 11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 끝에 진주성은 무너지고 7만에 가까운 민관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성은 아수라장으로 초토화됐다. 최경회, 김천일, 고종후 등 진주성 3장사는 성이 함락되는데 대한 책임을 지고 왕이 계신 북쪽을 향해 하직인사를 올린 후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국했다.

한편 전투가 한창일 때 논개는 성안에서 수발을 열심히 들었지만, 성을 빠져나가 후일을 도모하라는 최병사의 엄명에 성을 빠져나와 외진 곳에 은신하면서 전황을 살폈다. 성이 함락되고 최경회 병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논개는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했다. 마침 칠월 칠석에 왜군이 축석루에서 진주 관기들을 불러놓고 전승 축하연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논개는 이때를 놓칠세라 마음에 다지면서 관기들 틈에 끼여 연회장까지 들어갈 요량으로 관기들이 축석루에 들어가는 시간과 길목 등을 정확히 알아두었다. 그리고는 몸에 지니고 있던 금붙이로 여름옷 한 벌을 곱게 장만하고 가락지 등 필요한 물건도 구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논개는 관기처럼 곱게 단장하고 시간에 맞춰 길목에 서 있었다. 논개는 관기들이 축석루를 향해 들어갈 때 뒤에서 천천히 따라 가다가 발길을 돌려 축석루 아래 강가의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연회장으로 가면 정체가 탄로날 위험성이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어 상대방을 유인해보자는 계략이었다.



연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술에 취한 왜장들이 문득 강가의 바위 쪽을 내려다 보았다. 웬 선녀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강가의 바위끝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는 것이었다.

왜장들은 한눈에 반하여 금시라도 여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정체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돌연 육척장신의 체격이 장대한 왜장 하나가 논개 쪽으로 다가가면서 자기에게로 오라며 소리쳤다. 논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하면서 왜장을 유인했다. 왜장은 논개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논개 앞으로 다가갔다. 논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가락지를 낀 팔을 벌려 기쁘게 맞이하면서 왜장을 껴안으며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힘세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맹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였다. 논개가 순절한 바위를 후인들이 의암이라 이름짓고 논개와 동일시하여 호가 되었다.

식 사



오늘은 의암 주논개 탄신 432주년과 제39회 군민의 날입니다.
이런 뜻 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바쁘심을 뒤로 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과 군민과 더불어 먼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참해 주신 출향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장을 수상하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우리들의 민·관·군이 수없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많은 희생 가운데서 후세에 가장 뚜렷한 영향과 의미를 남겨준 죽음이 해전의 성웅 이순신 장군과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왜장을 꺼안고 순절하신 의암 주논개 살신보국이라 하겠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논개님의 죽음을 기리는 이유는 성벽을 대치하여 왜적과 싸움 끝에 성이 무너지고 6만 여명의 성민이 학살당하거나 자결한 처참한 상황에서 갓 스물의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던졌으며, 공성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죽이므로서 그들의 살벌한 기세를 꺾어, 호남 지방으로 진격하고자 하였던 전략을 바꾸어 후퇴로 이어지게 하였을 뿐 아니라 민·관·군의 호국정신에도 큰 기폭제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오히려 죽지 않고 역사 속에 다시 부활하여 4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민족의 혼을 일깨운 거룩한 삶을 살다 간 의인이며 시대를 넘어 겨레와 함께 영생불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님의 숭고한 우국단충의 뜻을 받들어 너와 내가 아닌 하나로 화합하여 논개 고을 푸른 장수 발전에 다같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 김진영

기념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땀의 결실인 수확의 기쁨과 함께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만추지절에, 의암 주논개 탄신 432주년 및 제39회 장수군민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그 어느해 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국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님과 자매결연 시·군 및 각 시장·군수님,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장님과 재경향우회원님의 장수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갑작스런 돌풍과 집중호우로 논개 대축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재민 돕기와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축제 행사 취소에 흔쾌히 뜻을 모아 주시고 사랑을 보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매우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지난 4년 동안 농업·농촌의 기반구축을 위해 농촌발전기획단과 지역순환농업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해 왔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민선 4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5천만원 소득, 3천농가 확보를 위한 5·3 프로젝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말산업과 연계한 산악 레저산업 육성,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 등 건강과 부(富)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 중심도시 장수”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의 힘이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성공을 가름할 수 있기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대축제 행사 준비와 진행에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의암 주논개님의 거룩한 충절과 기상이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길 바라며, 행사기간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장수군수 | 장재영

환영사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끝에, 눈가에, 옷깃 속에 가을바람이 넘실댁니다.

황금들판과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의암 주논개 탄신 432주년 기념 대축제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시기에 나라를 구하고자 왜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열아홉 꽃다운 젊음을 바친 의암 주논개.

살신성인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논개는 오늘날 열녀를 넘어 의인으로 평가되며 역사의 중심에서 한국사를 바꾼 여인으로 손꼽힙니다.

우리 민족의 얼을 대변하는 역사적 귀감이 되는 논개의 숭고한 정신은 432년이 지난 오늘에 이어져 그 역사성과 문화, 예술성을 두루 갖춘 전국적인 행사로 다시 꽃피고 있습니다.

아녀자는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일부종사, 정절하는 것 외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자 목숨을 바친 여인의 의와 열은 이기주의와 자기본위로 치닫는 현대에 커다란 교훈을 남깁니다.

정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에 되살려야 할 논개정신 일 것입니다.

고귀한 의암 주논개의 정신을 잇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며 전국적인 대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0월 24일

KBS전주방송총국장 | 윤 흥 식

축사



충절의 정신을 되새겨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로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가을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잇딤 홍수피해와 뒤이은 폭염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여름철을 뒤로 하고, 어느덧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담장 너머 수줍은 듯 고개를 내밀고, 찌르르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가 풍족한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는 의암 주논개님을 비롯한 열녀 원씨 부인, 정인승 선생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고귀한 기상과 충절이 넘쳐흐르는 의와 충절의 고장입니다. 아름다운 심산유곡과 함께 충효의 전통은 장수인의 긍지이며, 자부심입니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와 장수군민의 날' 행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주논개님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장수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입니다. 그간 이 행사는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상호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충절의 전통적인 정서를 현대적인 매체와 장르에 접목하는 시도들이 돋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우리들의 염원은 지금 커다란 시험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본이 보수화, 우경화하여 잇딤 망언과 신사참배로 우리 민족의 자긍심에 거둬해서 상처를 주더니, 얼마 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에 옮겨 한반도 평화에 암운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열들의 굳건한 충절의 정신을 되새겨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우리가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열과 불안을 조장하기보단 차분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고장의 향토시인 고두영님은 일찍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흙탕물결 잇빨 아삭이며 겨레의 가슴에 높이든 햇불, 영원한 성녀 구원의 여신입니다...' 이처럼 논개님의 나라사랑은 모진 바람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나는 들꽃과 같이 장수군민들의 마음 속 깊이 심어져 있습니다. 국난(國難)을 맞으면 충효와 충절로 분연히 일어난 장수인의 정신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훌륭하게 준비해주신 논개정신선양회 김진영 회장님과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축제에 함께하여 나라사랑의 가치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 국회의원 | 정 세 군

축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때 살신성인하신 의암 주논개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장수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탄신432주년 기념 '의암 주논개 대축제' 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암 주논개님은 이 고장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태어나 1593년 임진왜란 이라는 국난의 시기에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왜장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열아홉 꽃다운 젊음을 나라에 바친 충절의 여인이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열이십니다.

이렇듯 자랑스런 고장에 생활하시는 여러분은 그동안 교통의 오지로 개발이 소외되어 왔으나 이제는 청정지역으로 소문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맛이 좋은 장수사과를 비롯한 청정 한우와 토종 흑돼지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점차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관광 휴양지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주마 육성목장이 조성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으며 잠재력이 풍부한 희망의 고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암 주논개님의 항일정신과 우국충정이 우리의 역사속에서 빛나듯이 이 호기를 잘 활용하여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랑스런 오늘의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장수군민의 지친 마음을 풀어주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본받아 내일의 번영되고 살기좋은 장수군을 가꾸는데 힘을 모으는 축제 한마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장수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전라북도지사 | 김 완 주

축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경향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북게 물든 단풍이 손짓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늘『제39회 장수군민의 날』행사를 갖게 된 것을 군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으며, 늘 뜨거운 애향심으로 고장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과 출향인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군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진해시와 합천군에서 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단체장과 내외귀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자랑스런 군민의 장을 수상하신 내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시고, 산업자원부 장관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정세균 국회의원님께서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군민의 날을 맞아 대화합을 바탕으로 복되고 영광된 장수의 지평을 열어 나갈 군민 모두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실로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고장은 산자수명하고 인심이 좋은 곳이며, 의암 주논개님을 비롯하여 충북 정경손과 순의리 통인 백씨 등 살신성인 하신 분들로 국민의 귀감이 되는 삼절의 고장입니다.

장수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우, 원예작물 등은 이미 전국적으로 브랜드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제1호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가동되고 있어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3개의 국도와 3개의 고속도로가 우리군을 통과하게 되어 중부이남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장수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발전기반 위에서 우리 장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 중심도시의 메카로 물류·교통의 거점이자 전통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새로운 꿈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제도와 환경의 벽을 초월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각자 치단체간에 경쟁이 따르고, 그 경쟁의 틀 속에서 우위에 서지 못하면 결국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과 저력을 한데 모아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이 계속된다면 풍요로운 장수발전의 부푼 기대는 반드시 앞당겨 실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맞아 군민이 더욱 화합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장수군의회 의장 | 김 홍 기

축사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예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려 흥년이 들까 마음 졸였는데, 황금들녘을 보니 결실의 풍요로움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탄신 432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및 제39회 장수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수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오늘날 교통, 정보, 통신 등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은 매우 편리하여 졌지만, 반면에 우리의 삶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오랜 세월,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전통을 차츰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룩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이 가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공연자들의 마음이 담긴 여러 행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정신을, 가족간에는 서로 아끼는 마음을, 연인들에게는 더욱 큰 사랑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1년간 군민들의 애정 어린 손길로 가꾸고 만들어낸 장수의 자랑거리들은 잊혀져가는 향수를 불러 일으켜 축제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흠뻑 적셔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군민의 날을 축하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주논개 대축제가 널리 알려지고, 의로운 정신이 곳곳에 확산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구경 많이 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일은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친지 분들에게도 널리 권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장수군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축하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 김 병 곤

의암 주논개의 유적



논개사당(의암사)



논개 석상



생장향수명비



의암사 기념관



의암주논개랑생장지
사적불망비



논개 생가



최경희장군 추모비



의암 주논개 생가지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발자취





The Euiam Ju Nonggae Festival





장수의 표상(二德 · 三節 · 五義)

이덕 二德



정신재 백장(靜愼濟 白莊)

- 1342 (고려 충혜왕 3년) 출생~1418. 10. 15 사망
- 휘는 장(莊), 자는 明允, 시호는 충숙(忠肅), 관향은 水原
- 1357 (공민왕 6) 성균관 진사시 포은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사사, 역학과 경서에 능함.
- 1396년(태조 5) 해미땅으로 유배
- 1405년(태종 5) 장계면 월강리 유배
- 고려왕조가 무너지자 치악산에 은둔. 태종(1405)이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세자 사부에 제수 특명을 하였으나 거절
- 1418 (태종 18) 황희 정승이 장수로 유배되어 백장선생을 조석으로 문안드림.
- 태종, 세종조 이조판서를 지낸 큰 손서 송보산과 김남택이 처조부를 모시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함.
- 1828년 월강사 창건 : 백장을 주벽으로 송보산, 김남택, 최경희 등을 배향

◀ 정신재 백장 선생 묘소(장계면 금덕리)



방촌 황희(黃喜)

- 1363 (고려 공민왕 12) 출생~1452 (이조 문종 2) 사망
- 시호는 익성(翼成), 처음 이름은 수로(壽老)
- 1383. 진사에 합격, 1389. 문과에 급제, 1390. 성균관 학관
-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1394(태조 3) 성균관 학관
- 1400. 형조 · 예조 · 병조 · 이조판서, 우사간 대부
- 1418~1422. 세자(양영대군) 폐출에 반대. 장계면 금덕리 유배
- 1427. 좌의정, 1430. 탄핵으로 파직
- 1431~1449. 영의정
- 인품이 원만하고 생활이 청렴한 명신으로 후세 추앙
- 세종의 묘정에 배향, 파주의 방촌 영당, 상주의 옥동서원, 장수의 창계서원
- 황희의 묘 :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

◀ 방촌 황희 선생 동상 (장수읍 방촌공원 내)

삼절 三節

의암 주논개(義岩 朱論介)

- 신안주씨 부(달문), 모(밀양박씨), 1574. 9. 3 출생(4甲戌)
- 1590. 장수현감 최경회와 결혼
- 1592. 임진왜란시 최경회가 장수에서 의병 모집
- 1593. 6. 29 제2차 전투에서 진주성 함락
- 1593. 7. 7 적장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안고 남강에 순절

● 논개에 관한 유적

- 1625. 남강바위 "義巖"이라 새김 (정대웅)
- 1722. 진주에 의암 사적비 (최진한)
- 1740. 진주에 의기사 건립(남덕하)
- 1846. 장수 논개사당에 "축석의기 논개생장향수명비" (정주석)
- 1954~1956. 남산에 의암사 건립
- 1960. 논개생가지에 "의암주논개랑 생가지사적불망비" (김상근)

- 1987. 생가지 이전
- 1980. 주촌 초등학교에 동상 건립
- 1986년 동상 이전 (배형식)
- 1955. 논개영정 (김은호 화백)
- 1955. 사액 "의암사" 현판 (함태영 부통령)
- 1996.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여 정려각 (김상두)
- 2000. 생가지 현위치 이전

● 기록

- 1621경 어우야담 : 유몽인
- 1617 (광해군 9) 동국신속 삼강행실록
- 1651 (효종 2) 양곡집 : 오두인
- 1779 (정조 3) 진주의기사기 : 정약용
- 1800 (순조원년) 호남절의록
- 1839 (헌종 5) 호남삼강록
- 1872 (고종 4) 호남읍지
- 1910 일사유기 : 장지연
- 1996 논개실기, 이애미 논개,
- 1997 장수의 표상



▲ 의암사(장수읍 두산리)



▲ 장수향교(장수읍 장수리)

충복 정경손(忠僕 丁敬孫)

- 1597 (선조 30) 정유재란 당시 주민이 피난을 모두 떠났음.
- 향교 지기인 정경손은 총 · 칼로 위협하며, 성전을 불사르려 한 왜군에게 몸으로 저지하자
- 그 기개에 감복한 왜장은 "어떤 사람이든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신표를 붙임.

- 이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된 향교가 됨.
- 1846. "호성 충복 정경손 수명비"를 향교 앞에 세움.
- 1976. 부강문(외삼문) 좌측으로 옮김.



▲ 타루공원(천천면 장판리)

순의리 백씨(殉義吏 白氏)

- 1678 (숙종 4) 3. 22 장수현감 조종면이 전주 감영 출장
- 현 장판리에 이르렀을 때 장끼 한 마리가 소리치며 뛰어 오름.
- 이에 말이 놀라 마부가 말고삐를 놓쳐 현감이 말과 함께 송탄천에 떨어짐.
- 배리는 다하지 못한 책무를 통감,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 핏과 말을 그리고 "墮淚"라 새기고 현감을 따라 순절함.
- 이후 전해오는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부는 통인백씨, 조백비라 부르고

- 있고 현재 타루각이 서있는 자리는 1922년 조백비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음.
- 1802 (순조 2) 현감 최수형이 타루비를 세움.
- 1881 (고종 18) 현감 이헌승이 순의리비를 세우고 타루각을 세웠음.
- 1967 도로개설로 절벽의 흔적이 사라짐.
※ 통인 : 마부라는 노비의 명칭



장수의 표상(二德 · 三節 · 五義)

오의 五義



전해산 장군(全海山 將軍)

- 1879. 오수면 국평리 출생, 1885. 번암 대론 이거
- 1910. 7. 19 대구 형무소 사망
- 1910. 9. 8 부인 자결
- 이름 基泓, 자는 수용, 호는 해산, 관향은 天安
- 1907년 군대해산 통분. 스스로 의병을 일으킴.
- 1908. "대동창의단" 의병장
- 광주, 무안, 함평, 나주, 장성, 순창 등 3년 71회 전투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대론 원촌 마을 앞 쌍분 분묘가 있음.
- 노단 번암초등학교 앞 추모비 세움.

◀ 의사 전해산 추모비 (번암면 노단리)



문태서 장군 (文泰瑞 將軍)

- 1880. 서상면 장수동 출생, 1897. 계북 당저 이거
- 1905. 을사보호조약후 의병활동에 참여
- 1912. 함양군 서상면에서 체포, 1913. 2. 4 옥중 자결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전적비 : 문태서 전승 기공비 (구천동)
- 의병장 문태서 기공비(안익)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박춘실 장군(朴春實 將軍)

- 1875. 계북면 백암 출생, 1914. 6. 4 전주 형무소 자결
- 1905. 을사보호조약에 분개, 용담 구봉산 등지에서 의병 활동
- 1905. 5년간 60여 차례 전투
- 1977.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 의병대장 문태서 · 박춘실 전적비 (계북면 양악리)



백용성 조사(白龍城 祖師)

- 1864. 번암면 죽림리에서 출생, 1940. 열반
- 자는 白相圭, 관향 水原
- 14세에 남원의 덕밀암으로 출가
- 19세에 해인사에서 화월스님을 은사, 혜조율사를 계사로 정식 출가
- 1911. 서울 선당교당을 세워 3천여명 포교
- 1919. 3. 1 독립선언서에 불교계 대표로 서명(만해 한용운 스님의 스승)
- 10만여권의 불교서적(경전과 어록) 발간
- 선농일치의 이상적 수도 주창(경남 함양 백운산에 30여정보의 화과원 조성)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1998. 3월의 독립운동가 지정 (국가보훈처)
- 1998. 4 유희비 건립 (번암 죽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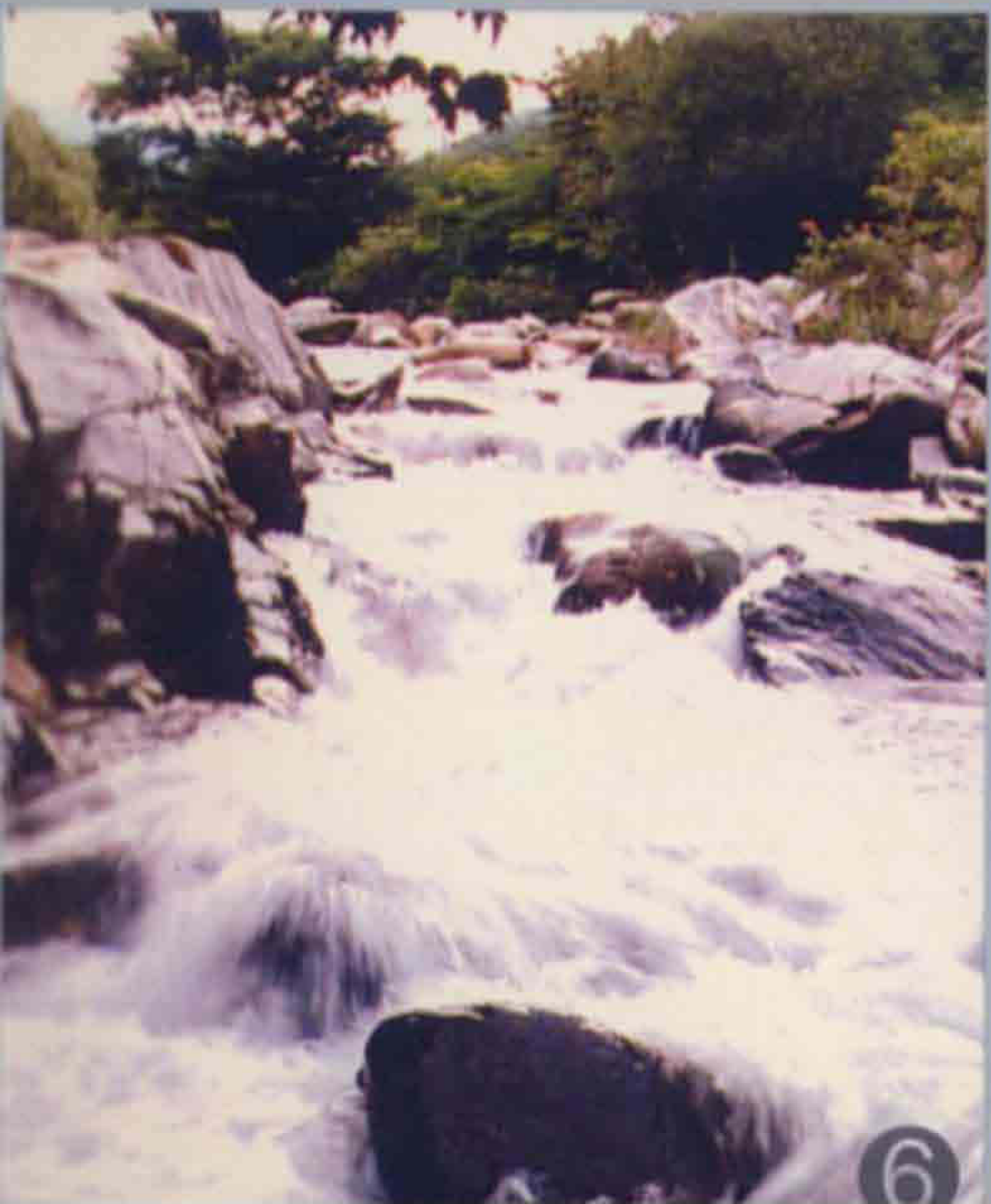
▲ 백용성 조사 생가지-죽림정사(번암면 죽림리)



정인승 선생(鄭寅承 先生)

- 1897. 계북면 양악에서 출생
- 1925~1935 고창고보 조선어, 영어를 가르침.
- 1936~1940 "한글 맞춤법 통일안" 수정 및 기초 위원
- 1953. 문교부 국어심의회 위원
- 1957.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 훈민정음 연구, 용비어천가 해설, 동국정운 등을 연구하였고
- "눈의 글" "31의 글" 등 많은 저서를 남김.
- 1962. 건국공로훈장
- 1997. 유희비 건립(계북 양악)

▲ 정인승 선생 기념관(계북면 양악리)



우리 관광명소

① 장안산 군립공원

조선 8대 종산이기도 한 장안산은 가을철 광활한 억새밭과 정상에서 바라본 겨울철 설경이 절경이다.

② 덕산용소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청류수는 은쟁반에 옥구를 구르는 소리와 같다.

③ 어필각 (지방유형문화재 제143호)

조선조 영조 27년(1752년) 태종이 사간공 천곡 안성 선생에게 내려준 어필 왕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산서면 오성리에 창건 하였다.

④ 방화동가족휴가촌 / 휴양림

오토캠핑장 시설을 갖춘 심산유곡의 휴양지로서 여름철 가족단위 캠프장으로 최적지이다.

⑤ 지지계곡

가을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산자수명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⑥ 토목동 계곡

남덕유산의 여러 골짜기중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계곡이다.

⑦ 와룡자연휴양림

와룡계곡의 자연림 내에 연수의 집, 산막, 물·눈썰매장, 물놀이장, 잔디광장 등 각종 휴양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도심의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기에 최적지이다.

청정지역 장수군 농·축산물은 안전합니다.



장수사과



장수 오미자



장수 태양초 고추



장수 메뚜기쌀



장수 청정인우



장수 토종흑돼지



장수 흑염소(흑보)



장수 전통 민과

“
자연이 함께 숨쉬는 푸른장수
변화하는 농협·함께하는 농협
”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지부장 박형규

장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고강영

장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성근

장수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송제근

농촌종합개발 및 농지은행, 용수관리
전문공기업 한국농촌공사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 하는 든든한
희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는 '농촌종합개발',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영농규모화', '농지은행', '농촌소득기반조성',
'수질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은행
www.fbo.or.kr

우리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농민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고객이 건강하도록,

무한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 제1호 거점산지유통센터 **SAPC**



논개

수주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붓는 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릿답든 그 蛾眉
놉게 흔들리우며
그 石榴 속가튼 입설!
[죽음]을 입맛추엇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江물은
기리기리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